

혈관합병증, 예방하고 관리하자!

- 서울백병원 심장혈관센터를 찾아서 -



▲서울백병원 심장혈관센터 김용인 교수

제 2형 당뇨병은 혈관질환이다. 그렇지만 당뇨병인 중에는 자신이 심각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백병원 심장혈관센터를 찾아 건강한 혈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의한 우리의 식생활의 서구화로 심장 및 혈관질환도 서구화 되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성인병의 하나인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급증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장질환 전문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서울백병원 심장혈관센터는 관상동맥 질환을 비롯하여 각종 심장질환 및 혈관질환의 정확한 진단

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설되어 각종 심장수술을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역행성 자가혈충전법이란 신기법을 국내 처음으로 시행하여 복합 관막 심장수술을 무수혈 시술 성공하여 심장수술의 영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고,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 수술 및 최소 절개 심장수술 등 최신 기법을 도입한 심장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심장혈관센터의 진료과정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기 사진

심장 정밀검사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검사, 24시간 혈압측정,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경식도 심장 초음파, 심장 핵의학검사, CT혈관 조영검사, 심장 자기 공명 영상 혈관조영 검사, 심장 및 혈관 조영술, 관상동맥 조영술, 각종 심장 질환시 증가되

는 혈액 생화학 검사 등을 시행하고 종합하여 치료방향을 설정한다.

관상동맥 우회수술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을 유발하는 심혈관 질환의 수술적 치료방법으로 내흉동맥, 좌우 상완동맥, 다리 정맥 등을 이용하여 관상동맥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수술이다. 현재 서울백병원에서는 무심폐기 수술이나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한다.

인공판막 치환술 또는 판막 성형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승모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삼첨판,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대동맥판막,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있는 폐동맥판막 등이 좁아지거나 넓혀진 경우 또는 염증이나 외상에 의해 파손된 경우에 기계식 인공판막이나 조직 인공판막으로 대체하는 수술이다. 경우에 따라 판막을 대체하지 않고 성형술로 복원시키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인공심장 박동기 및 제세동기 삽입술

심장박동 이상 시 정밀 심장 전기 생리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을 동반하는 서맥이나 방실결절 블록 등에서 인공 심장 박동기를 삽입하고 있으며 심실빈맥이나 심실 세동 등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그런 위험이 내재된 환자에게 정밀 심장 검사 후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돌연사 방지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있다.

대혈관 및 말초혈관 수술

상행 대동맥, 동맥궁, 하행 대동맥 그리고 복부 대동맥 등의 동맥류나 동맥파열 등 만성 및 급



▲심장혈관 증환자실 사진

성 대동맥 수술과, 경동맥 및 하지 동맥 질환 등의 수술 등을 시행한다.

관상동맥 혈관 풍선 성형술 및 그물망 시술

심장 내과 전문 교수가 중심이 되어 심장 외과의 지원 하에 시행되는 관상동맥 질환 치료 시술로 그 적응증에 해당 시에 시술이 가능하다.

혈당,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함께!

심장혈관센터를 찾는 환자들의 2/3는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들이라고 한다. 심장혈관센터의 김용인 교수는 “당뇨병은 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흉통으로 센터를 찾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들입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좁아져서 심혈관질환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환자들은 심근경색의 확률도 높습니다. 당뇨, 고혈압에 흡연까지 한다면 혈관합병증을 피할 수 없으니 절대 금연하셔야 하고, 식사, 운동, 약물요법을 통한 철저한 혈당과 혈압관리가 필요합니다. 흉통을 느끼면 바로 심장전문의를 찾아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글 박혜선 기자